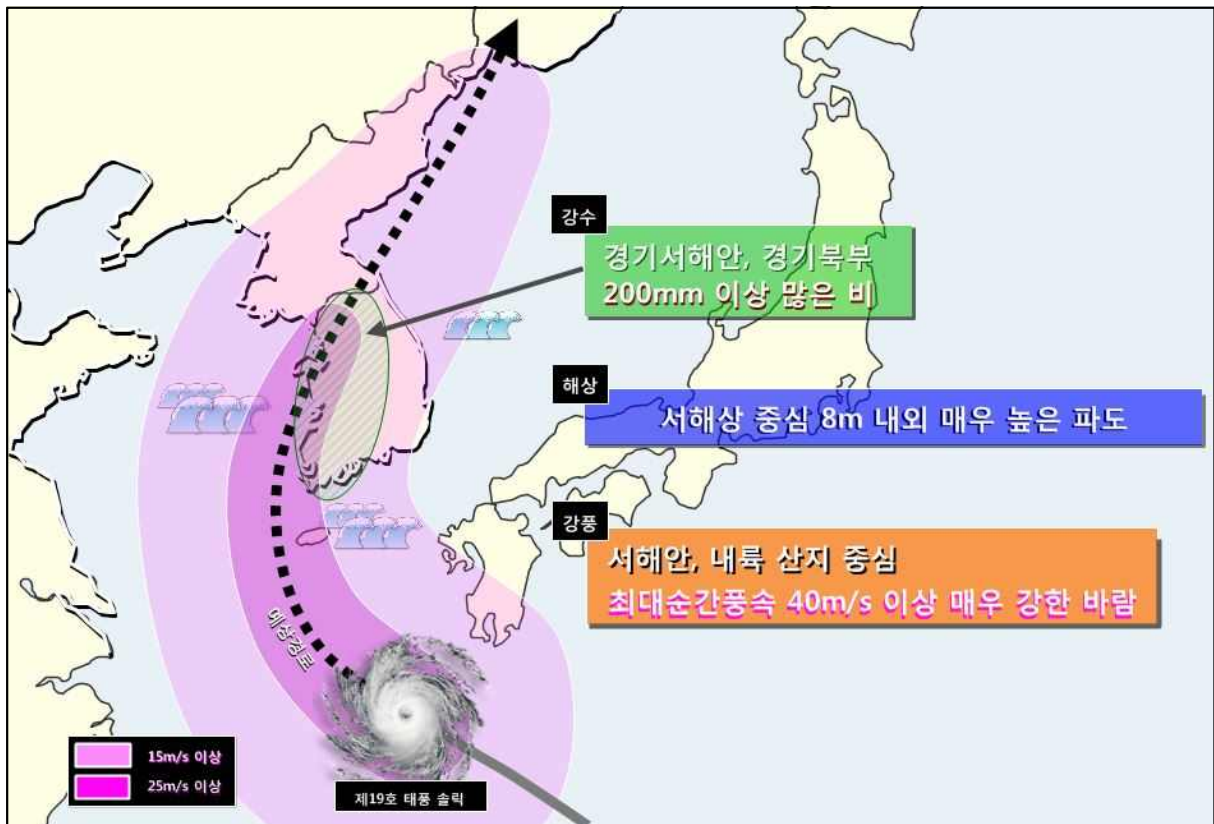


설명자료

배포일시	2018. 8. 22.(수) 11: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예보관	정종운 임교순	전화번호 070-7850-8220 070-7850-8240

태풍 솔릭(SOULIK) 북상, 수도권 태풍 직접 영향!

- 서해상을 따라 북상, 23일 밤 중부서해안 상륙
 - 24일까지 최대 200mm이상 많은 비, 최대순간풍속 40m/s 이상 강풍
 - 서해상 최대 8m의 매우 높은 물결, 해안가 해일 피해 주의



<태풍 예상 진로 모식도>

【태풍 현황과 전망】

- 22일(수) 09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강한 중형급(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155km/h))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음.

- 태풍 ‘솔릭’은 점차 북서진하여 22일(수) 밤부터 23일(목) 아침 사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서해남부해상까지 북상하겠음. 23일(목) 늦은 밤 경 중부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24일(금) 새벽 수도권 지역을 통과해 오후에는 강원도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음.

- 이 영향으로 22일(수) 11시 현재 제주도와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22일(수)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의 남부지방과 서해 남부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발표되겠음. 23일(목)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음.

[강수, 강풍 전망]

- 태풍이 바닷물의 온도(28℃ 내외)가 높은 구역을 지나면서 ①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②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우측반원)에 들기 때문에 태풍의 경로와 가까운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40m/s(144km/h),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순간 풍속 20~30m/s(72~108km/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옥외 시설물, 건물 유리창, 가로수 등 제반 시설물 붕괴와 같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또한, 22일(수)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24일(금) 아침까지 전국 항공기 운항에 큰 불편이 예상되니, 항공기 운항 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 특히,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총 누적 강수량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기 바람.

※ 예상강수량(23~24일)

서울·인천·경기도, 서해5도 : 50~100mm

* 많은 곳 150mm 이상, 경기서해안, 경기북부 200mm 이상

[해상 전망]

- 해상에서도 오늘(22일)~24일(금)에 전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5~8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라며,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또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기간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해일에 의해 해수범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 시설물 피해,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행락객, 피서객들도 매우 높은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